

원리가 따라서 나온 자리이다.

心者 人之神明 所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性則心之所具之理 而天又理之所從以出者也

* **‘진심盡心’**은 ‘미발未發의 성심誠心’이니, 마음을 지극한 자리까지 몰고 가서 ‘천리天理’와 빈틈없이 하나로 합함이다. 이때 하느님의 명령이자 본성인, 천리를 자명하게 이해함은 **‘지성知性·지천知天’**을 이룬다. ‘성의誠意’로 ‘미발의 중심’에 이르러 **‘천하의大本大本(중中, 인의예지신의 원형)’**을 깨달음이다. **‘존심存心’**은 사단의 양심을 보존함이니, 한 생각이 움직여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이 갈릴 때 ‘천리의 사단’을 보존함이다. 이때 하느님의 명령이자 본성인, 천리를 언제 어디서나 잘 챙기는 것은 **‘양성養性·사천事天’**을 이룬다. 성의誠意로 ‘이발의 조화’를 이루어 **‘천하의 달도達道(화화, 인의예지신의 실천 자연법, 보편적 도덕률)’**를 실천함이다.

* 맹자의 공부론

① 진심盡心(사단의 근원)→ 지성知性(중中)

② 존심存心(사단의 확충)→ 양성養性(화화)

- 지언知言, 양기養氣, 집의集義, 강서強恕

2. 맹자께서 이르시길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돌이켜 보아 정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하라.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서견’(남을 나처럼 여기는 것)을 힘써 행하라. ‘사랑’을 구함이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다”라고 하셨다. (**강서強恕→ 측은지심의 확충!**)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強恕而行 求仁莫近焉

(「진심盡心」 상)

3.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이며, ‘정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려두고 말미암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구하지 않으니 슬프도다! 사람들은 소유하던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안다. 그러나 본심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잃어버린 ‘본심’을 다시 찾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셨다.

孟子曰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雞犬 放則知求之 有放心 而不知求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고자告子」 상)

4.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내버려두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이러한 구함은 얻는데 도움이 되니(구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다!),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본래 내가 가진 ‘본심’을 구하는 것!)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진심盡心」 상)

* 『누가복음』 (1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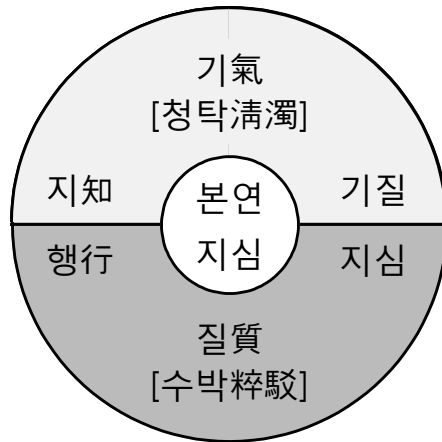
“내가 그대들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그대들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대들이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대들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대들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대들이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5.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우산牛山の 나무는 일찍이 아름다웠다. 그런데 큰 나라의 교외에 있어서, 큰 도끼와 작은 도끼로 베니 가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 낮과 밤으로 자라는 바가 있고 비와 이슬로 윤택해지는 바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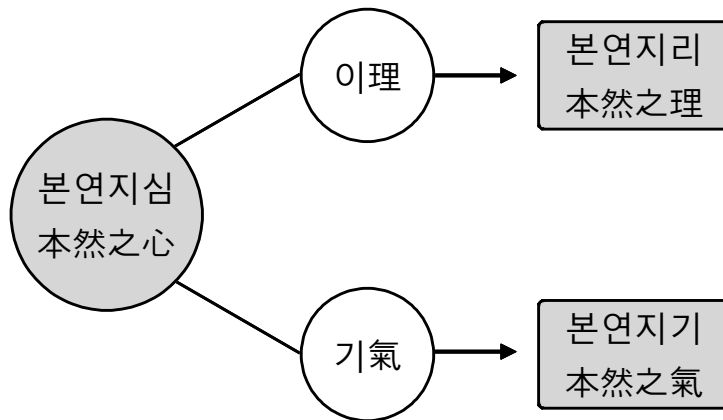
어서, 싹이 나옴이 없지는 않으나, 소나 양이 또한 (그 싹을) 따라서 길러진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저와 같이 반질반질하게 되었다. 사람이 그 반질반질함을 보고 일찍이 재목이 있지 않았다고 여긴다면, 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찌 **'인의의 마음'**(본연지심本然之心, 본심本心)이 없겠는가? 그 **'양심良心'**을 잃어버리는 것은, 또한 큰 도끼와 작은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것과 같다. 아침마다 베니 가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 낮과 밤으로 자라는 바와 **'새벽의 기운'**(평단지기平旦之氣, 청명지기淸明之氣, 본연지기本然之氣, 야기夜氣, 사물과 접하기 이전의 새벽의 기운, 인시寅時 3~5시의 갓 태어난 순수한 양기陽氣)이 있으나, 그 좋아하고 싫어함이 남들과 더불어 서로 가까운 것(5가지 양심)이 거의 드문 것은, 아침과 낮에 하는 행동이 옥죄어 없앤 것이다. 그 옥침이 반복되면 그 **'밤기운'**(夜氣)이 족히 보존되지 못한다. 밤기운이 족히 보존되지 못하면, 금수와와 거리가 멀지 않게 된다. 사람이 그 금수를 봄에 '일찍이 재능이 없다'라고 여기니, 이 어찌 사람의 실정이겠는가?

孟子曰 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人見其濯濯也 以爲未嘗有材焉 此豈山之性也哉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 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不遠矣 人見其禽獸也 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哉 (「고자告子」 상)



[본연지심과 기질지심]



6.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마음’에 뿌리를 둔 것으로, 그 형색을 나타냄에, 얼굴에서는 흰하게 드러나고, 등에서는 풍성하게 드러나며, 사지四肢에서는 실제로 시행된다. 사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깨닫게 된다”하였다. **(인의예지의 본성!)**

君子所性仁義禮智 根於心 其生色也晬然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 (「진심盡心」 상)

7. 맹자께서 이르시길 “사람에게는 ‘참을 수 없는 마음’(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있으니, (이 마음을) 그 ‘참는 마음’에 도달하게 하면 ‘인자함’(仁)이다. 사람에게에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수오지심羞惡之心)이 있으니, (이 마

음을) 그 ‘하는 마음’에 도달하게 하면 ‘정의로움’(義)이다. 사람이 남을 해치려 하지 않는 마음(참을 수 없는 마음, 惻隱之心)을 채울 수 있다면, 인자함을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구멍을 뚫고 담을 넘지 않는 마음(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羞惡之心)을 채울 수 있다면, 정의로움을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네 이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실질을 채울 수 있으면, 가는 곳마다 정의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선비가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을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으로 아첨하는 것이며,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첨하는 것이다. 모두 구멍을 뚫고 담을 넘는 부류이다”라고 하셨다.

孟子曰 人皆有所不忍 達之於其所忍 仁也 人皆有所不爲 達之於其所爲 義也 人能充無欲害人之心 而仁不可勝用也 人能充無穿踰之心 而義不可勝用也 人能充無受爾汝之實 無所往而不爲義也 士未可以言而言 是以言誥之也 可以言而不言 是以不言誥之也 是皆穿踰之類也 (「진심盡心」 하)

8.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에게는 모두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不忍人之心, 측은지심)이 있다. 선왕에게는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으니, 남에게 참을 수 없는 정사가 있다.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참을 수 없는 정사를 행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손바닥 위에 놓고 굴러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모두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말하는 까닭은, 이제 사람이 문득 어린 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려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모두 놀라 두려워하며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어린 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

었기 때문도 아니며, 마을과 벗들에게 명예를 얻고자 하였기 때문도 아니며, 그 비난을 꺼려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찰해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사랑’(仁)의 단서이며, 수오지심은 ‘정의’(義)의 단서이며, 사양지심은 ‘예절’(禮)의 단서이며, 시비지심은 ‘지혜’(智)의 단서이다. 사람에게 이 ‘4가지 단서’가 있는 것은 4지가 있는 것과 같으니, 이 4가지 단서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다. 그리고 그 임금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대저 나에게 있는 ‘4가지 단서’를 넓히고 채워줄 줄 알면(확충擴充),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이 처음 솟아나오는 것과 같을 것이니, 진실로 이를 채울 수 있다면 족히 4해를 보존할 것이다! 만약 이를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도 모실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可運之掌上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 自賊者也 謂其君不能者 賊其君者也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

父母 (「공손추公孫丑」 상)

9.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아! 그 순수한 감정은 선하니, 이것이 내가 말한 선함(善, 본성의 선함)이다. 만약 선하지 않은 것은 ‘재능’(才, 양능良能)의 죄가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을 사람이 모두 가졌으며,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을 사람이 모두 가졌고, ‘공경하는 마음’(恭敬之心)을 사람이 모두 가졌으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을 사람이 모두 가졌다.

측은지심은 ‘사랑’(仁)이며, 수오지심은 ‘정의’(義)이고, 공경지심은 ‘예절’(禮)이며, 시비지심은 ‘지혜’(智)이다. ‘사랑·정의·예절·지혜’(仁義禮智)는 바깥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에게 녹아든 것이 아니다.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나, 다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구하면 얻고, 내버려두면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혹은 서로 배가 되기도 하고 다섯 배가 되기도 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것은, 그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경』에 이르길 ‘하느님이 여러 백성 낳음에,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으니, 백성이 떳떳한 법도(夷, 彝와 통용, 인간의 5가지 길)를 붙잡았기에, 아름다운 덕(5가지 양심의 실천)을 좋아한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셨다.

孟子曰 乃若其情 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惻隱之心 人皆有之 羞惡之心 人皆有之 恭敬之心 人皆有之 是非之心 人皆有之 惻隱之心 仁也 羞惡之心 義也 恭敬之心 禮也 是非之心 智也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曰 求則得之 舍則失之 或相倍蓰而無算者 不能盡其才者也 詩曰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夷 好是懿德 孔子曰 爲此詩者 其知道乎 故有物必有則 民之秉夷也 故好是懿德 (「고자告子」 상)

10. (공손추)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장점이 있으신지요?”
 (맹자) “나는 남의 말을 알고(지언知言),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양오호연지기養吾浩然之氣).” (공손추) “감히 묻겠습니다. 무엇을 일
 러 ‘호연지기’라고 합니까?” (맹자) “말하기 어렵다. 그 기운 됴이 지극히 크
 고 지극히 강하니, 똑바로 배양하여 상하게 하지 않으면, 천지간에 가득 차게
 된다. 그 기운 됴은 ‘정의’(義, 善)와 ‘진리’(道, 眞)에 짝이 되니, 이 기운이
 없으면 (정의와 진리도) 굶주리게 된다.

‘호연지기’는 정의로움을 쌓아서 생겨나는 것이다. 정의란 불시에 쳐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실천함에 마음에 ‘뿌듯함’(양심에 부끄러움 없
 음, 성의誠意의 신바람)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고
 자는 일찍이 정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이니, 정의를 바깥의 것으로 여겼
 기 때문이다. (호연지기를 기르려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할 뿐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잊지 말되 조장하지도 말아야 한다.**”

敢問夫子惡乎長 曰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敢問何謂浩然之氣 曰難言也 其
 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
 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 則餒矣 我故曰 告子未嘗知
 義 以其外之也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공손추公孫丑」 상)

* ‘호연지기’(清明之氣)를 기르는 것(양기養氣)은 ‘사단의 양심’ 중 수오지
 심의 확충!(집의集義)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된다.
(양기養氣 · 집의集義 → 수오지심 · 사양지심의 확충)

11. (공손추가 물었다.) “무엇을 가지고 ‘남의 말을 안다’(知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① 편파적인 말(諛辭)을 들으면 그 가려진 부분을 분명히 알고, ② 음탕한 말(淫辭)을 들으면 욕망에 빠진 부분을 분명히 안다. ③ 사악한 말(邪辭)을 들으면 진리에 위배되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④ 상황을 모면하려 둘러대는 말(遁辭)을 들으면 그 궁색한 부분을 분명히 안다. **(지언知言→ 시비지심의 확충!)**

何謂知言 曰諛辭 知其所蔽 淫辭 知其所陷 邪辭 知其所離 遁辭 知其所窮
(「공손추公孫丑」 상)

12. 천하의 넓은 곳에 거처하며(인仁),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예禮), 천하의 큰 길을 걷는다(의義).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걷는다. 부하고 귀함(富貴)으로도 그를 타락시킬 수 없고, 가난하고 천함(貧賤)으로도 그를 움직일 수 없으며, 권위와 무력(威武)으로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러한 자를 이른바 ‘대장부’라고 한다.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與民由之 不得志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등문공滕文公」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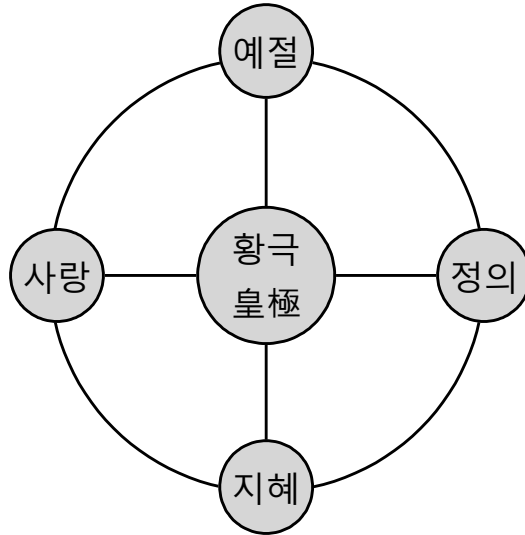
13.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남을 사랑하여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사랑’(仁)을 반성해보라.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智)를 반성해보라. 남에게 예절로 대하여도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자신의 ‘공경’(敬)을 반성해보라. 행하여 얻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원인을) 모두 자신에게서 반성하여 찾아보라. 그 몸이 바르면 천하가 귀의할 것이다.

孟子曰 愛人不親反其仁 治人不治反其智 禮人不答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이루離婁」 상)

14.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임금이 인자하면 인자하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임금이 정의로우면 정의롭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孟子曰 君仁莫不仁 君義莫不義 (「이루離婁」 하) **(윗사람 하기 나름!)**



15.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영토·곡식)이 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임금은 사직과 백성의 관리자! 백성에게 공적 서비스 제공하는 자!)** 이 때문에 백성(丘民)에게 임명된 사람은 ‘천자’가 되고, 천자에게 임명된 사람은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임명된 사람은 ‘대부’가 되는 것이다.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바꾸어 임명한다. 제사 때 바치는 짐승(희생犧牲)이 이미 이루어지고, 제사에 올리는 곡식(자성粢盛, 기장·피)이 이미 정결하고, 때에 맞춰 제사를 지냈는데도, 가뭄이 들고 홍수로 물이 넘치면 ‘사직’을 바꾸어 설치한다”라고 하셨다.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諸侯危社稷 則變置 犧牲既成 粢盛既潔 祭祀以時 然而旱乾水溢 則變置社稷 (「진심盡心」 하)

16. 제나라 선왕이 질문하길 “탕湯왕이 걸槃을 내쫓고, 무武왕이 주紂를 쳤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맹자께서 대답하시길 “경전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맹자) “‘사랑’(仁)을 해치는 자를 ‘해치는 자’라고 하고, ‘정의’

(義)를 해치는 자를 ‘상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해치고 상하게 하는 사람을 일러 ‘홀로된 사내’(천하에서 버림받음)라고 합니다. 홀로된 사내인 주紂를 주살하였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고객만족을 최우선시하는 공복公僕)**

齊宣王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臣弑其君可乎 曰賊仁者謂之賊 賊義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 (「양혜왕梁惠王」 하)

* 『노자』

‘하늘의 도’(天道)는 친애하는 바가 없으나, 늘 선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

天道無親 常與善人

* 『대학大學』

「강고康誥」에 이르기를 “천명天命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선하면 얻고 선하지 못하면 잃음을 말한 것이다.

康誥曰 惟命不于常 道善則得之 不善則失之矣

(천명天命은 ‘호선오악好善惡惡’이니, ‘양심’을 따르는 이와 함께함. ‘민심民心’[백성의 양심]이 바로 ‘천심天心’이니, 백성의 양심이 지지하면 그것이 곧 하늘이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명을 받은 것. 백성의 양심이 떠나면 천명이 떠남! 늘 백성의 ‘양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정치!)

17. 맹자께서 제나라 선왕에게 말씀하시길 “왕의 신하 중에 그 벗에게 처자식을 부탁하고 초나라에 가서 노닐 자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그 처자식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왕이 “버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맹자) “관관의 우두머리가 능히 관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이르길 “파면시켜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맹자) “4방의 경계(천하)의 안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좌우를 돌아보며 다른 말하였다.

孟子謂齊宣王曰 王之臣有託其妻子於其友 而之楚遊者 比其反也 則凍餒其妻子 則如之何 王曰 棄之 曰士師不能治士 則如之何 王曰 已之 曰四境之內不治 則如之何 王顧左右而言他 (「양혜왕梁惠王」 하)

18.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만났는데, 왕은 연못 위에 서 있으면서 기러기와 사슴을 보면서 말하였다. “현자도 또한 이것을 즐깁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시길 “현자가 된 뒤에야 이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자는 비록 이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즐길 수 없습니다. 『시경』에 이르길 ‘영대靈臺(왕의 누대)를 짓기 시작하여 경영하네. 여러 백성이 다스리니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었네. 짓기 시작함을 빨리 하지 말라고 하시나 여러 백성들이 자식처럼 도우러 왔네. 왕에게 영유靈囿(왕의 동산)가 있는데 사슴이 엮드려 있네. 사슴은 살찌서 윤택하며 백조는 희고 곱네. 왕이 영소靈沼(왕의 연못)에 있으니 아! 가득히 물고기가 뛰는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문왕이 백성의 힘으로 누대를 만들고 연못을 만들었으나, 백성들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를 ‘영대’(신령한 대)라고 하고 그 연못을 ‘영소’(신령한 연못)라고 하고, 그 사슴이 있고 물고기와 자라가 있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옛사람(선왕)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했기 때문에, 백성도 능히 즐거워해준 것입니다. 『서경』의 「탕서湯誓」에 이르길 ‘이 해는 언제 없어지나? 내가 너와 함께 망하리라’라고 하였으니, 백성이 함께 망하고자 한다면, 비록 누대와 연못이 있고 새와 짐승이 있더라도, 어찌 능히 홀로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여민락與民樂)**

孟子見梁惠王 王立於沼上 顧鴻雁麋鹿 曰賢者亦樂此乎 孟子對曰 賢者而後樂

此 不賢者雖有此 不樂也 詩云 經始靈臺 經之營之 庶民攻之 不日成之 經始勿亟 庶民子來 王在靈囿 麀鹿攸伏 麀鹿濯濯 白鳥鶴鶴 王在靈沼 於物魚躍 文王以民力爲臺爲沼 而民歡樂之 謂其臺曰靈臺 謂其沼曰靈沼 樂其有麀鹿魚鱉 古之人與民偕樂 故能樂也 湯誓曰 時日害喪 予及女偕亡 民欲與之偕亡 雖有臺池鳥獸 豈能獨樂哉 (「양혜왕梁惠王」 상)

* 『대학』

『시경』에 이르기를 “즐거우신 군자여, 백성의 부모이시다”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일러 “백성들의 부모이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측은지심을 확충하여 백성의 이해를 자사의 이해로 삼아야만 훌륭한 리더! 대아적 효율성 추구)**
 詩云 樂只君子 民之父母 民之所好好之 民之所惡惡之 此之謂民之父母

19.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일정한 마음이 있는 것은 오직 ‘선비’라야 능할 것입니다. 만약 백성이라면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일정한 마음도 없습니다. 만약 일정한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치하여 못하는 바가 없게 됩니다. ‘죄’에 빠진 뒤에 쫓아가 그를 형벌함은 백성을 그물로 잡는 것입니다. 어찌 ‘인자한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에게 그물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주의 4단확충!)**”

이러한 사정 때문에 밝은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정하여 줌에, 위로는 반드시 부모님을 섬기는데 족하게 하고, 아래로는 반드시 처자식을 기르는데 족하게 하며, 풍년에는 반드시 내내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도 반드시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런 연후에야 ‘선홍’으로 몰아가므로 백성들이 쉽게 따르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생업을 정하여 줌에,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는데 부족하며, 풍년에도 내내 괴로우며,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죽음’만을 면하게 해주는 것에도 넉넉할까 두려운 바이니, 어느 겨를에 ‘예의禮義’를 다스리겠습니까? 왕께서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찌하여 그 ‘근본’(항산恒産의 보장)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하셨다. **(왕도정치는 먼저 생계를 보장한 뒤에 양심 충족으로 나아가야 함)**

曰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今也 制民之産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歲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 此惟救死而恐不贍 奚暇治禮義哉 王欲行之 則盍反其本矣 (「양혜왕梁惠王」 상)

20. 사람에게에는 ‘인간의 길’이 있다. 배부르게 먹고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히 거처하되, ‘교육’이 없다면 짐승에 가까워진다. 성인(순임금)께서 이를 걱정하시어, 설契(은나라의 시조)을 사도司徒로 삼아 ‘인간의 윤리’(人倫)를 가르치게 하셨으니, ‘① 부자유친父子有親 ② 군신유의君臣有義 ③ 부부유별夫婦有別 ④ 장유유서長幼有序 ⑤ 붕우유신朋友有信’이 그것이다. 요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위로해주고 오게 하여, 바로잡아주고 곧게 해주며, 보좌해주고 도와주어 스스로 본성을 얻게 하라. 또한 기질에 따라 진작시키고 덕을 베풀어라”라고 하셨다. **(국민의 양심을 잘 길러줌)**

人之有道也 飽食 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放勳曰 勞之來之 匡之直之 輔之翼之 使自得之 又從而振德之 (「등문공滕文公」 상)

21. ‘패자’의 백성은 기뻐하나, (패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패자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함) ‘왕자’의 백성은 스스로 밝을 뿐이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임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따르는 밝은 삶에 만족함) 죽여도 원망하지 않으며, 이롭게 해주어도 공으로 여기지 않는다. 백성들이 날로 선善으로 옮겨가하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자를 알지 못한다. **(백성들이 양심을 밝혀 선으로 나아가도록 은밀히 도움)**

孟子曰 霸者之民 驩虞如也 王者之民 皞皞如也 殺之而不怨 利之而不庸 民日遷善而不知爲之者 (「진심盡心」 상)

(남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정치는 하류이다. 진정한 정치는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밝혀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은밀하게 돕는 것이다. 군주와 법률에 의존하는 국민이 아닌, 오직 자신의 ‘양심’에 복종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왕도정치이다!)

* 『노자』

공덕을 이루고 사업을 완수하더라도,
백성들이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한다.
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 『대학』 **(먼저 군주가 양심을 확충하고, 나아가 국민의 양심을 잘 길러줌!)**

대학의 길은 본래 ‘밝은 덕’(明德)을 다시 밝히는데 있고, 백성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잘 돌보는데 있고, ‘최고의 선’(至善)에 머무르는데 있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新)民 在止於至善